

NEWSIS

어떻게 수용할까...소피 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기사입력 2013-03-14 06:24



【서울=뉴스시스】오제일 기자 = '잘 지내기를 바라요(Take Care of Your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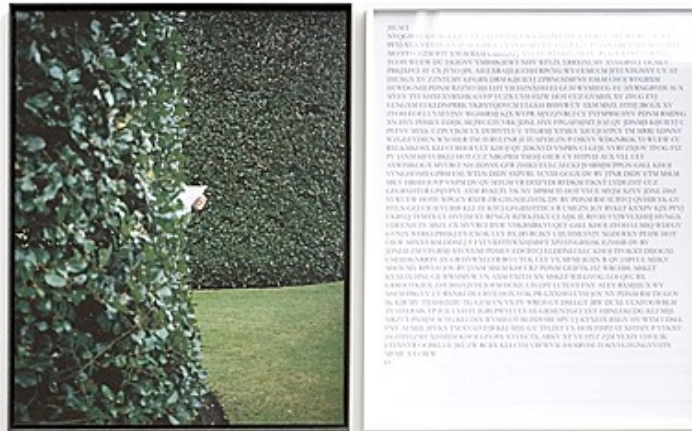
2004년, '다른 여자들을 만난 지 몇 달이 된다'며 이별을 알리는 남자친구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를 받은 여성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 편지를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해석해달라"며 107명의 여성에게 e-메일을 보냈다.



편지를 받은 이들은 편지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거나 책을 만들어 답장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UN 여성인권 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기자, 판사, 댄서 등의 답장은 프랑스의 개념미술가 소피 칼(60)에게 부쳐졌다.

"내 삶을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들어낸 결과물이 예술적인 작품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그녀는 답장을 모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공간에 시각적으로 펼쳤다. '편지'가 전했던 '이별의 아픔'이 떠나고 작품 '잘 지내기를 바라요'가 남았다.

소피 칼이 해온 작업은 자신의 인생을 탐구하되 그 과정에 주변인들과 낯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케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가 탐정을 고용, 자신을 미행토록 하는 식이다. 소설가 폴 오스터(66)에게 자신에 대한 작품을 쓰면 그 내용에 맞춰 살아 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폴 오스터가 부담감 때문에 작품을 집필하는 것을 거절했다"며 웃는 소피 칼은 점쟁이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장기 프로젝트 작품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Where & When)'는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보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됐다.

점쟁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대로 움직였다. 2004년 시작된 프로젝트는 2012년 끝났다. 소피 칼은 기차 시간표, 호텔, 만나는 사람 등을 사진, 비디오, 텍스트로 기록해 '베르크(Berck)' '루르드(Lourdes)' '노 웨어(Nulle Part) 등 세 가지 작품 시리즈로 선보였다.

"게임의 룰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장의 벽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전시됐을 때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룰은 단 하나, 예술적 가치를 가지느냐 마느냐다."



1970년부터 연출, 사진과 소설을 결합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온 소피 칼이 한국에서 첫 개인전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를 연다. 작품 '잘 지내기를 바라요'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가 전시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311 아트프로젝트에서 4월20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02-3446-3137

kafka@newsis.com

[뉴스스 이시간 핫 뉴스]

- · 北, 朴대통령에 "독기어린 치맛바람" 첫 비난
- · [단독]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등 고소 '취하'
- · '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 등 불구속 기소
- · [단독]박시후 측 "A양, 80세까지 책임요구"
- · 초등생 3명 20대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충격

★ 뉴스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스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스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5027727>
